

자존감 '상승' 구직활동 '활발'... 참여자들 만족도 100%

# 전주 청년쉼표 프로젝트 효과 '톡톡'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청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활발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추진된 청년쉼표 프로젝트 1기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젝트 참여자의 95%가 취업 준비와 구직활동 등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등 사업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심리치유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삶에 대한 응원을 보내는 전주시의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매월 50만원씩 세 차례의 활동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청년쉼표 1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전체 사업만족도 설문항목에 58%가 '매우만

참여자 95% 외부활동 증가 88%가 심적 치유에 도움

족', 44%가 '만족'으로 응답해 100%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심적 치유와 자존감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8%로 높게 나타났다. △구직·취업 도움 83% △활동수당 실질적 도움 100%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의 95%가 외부활동과 대인관계 등이 활발해졌으며, 청년활동수당을 통해 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또 참여한 청년들이 심리검사와 집단·개인상담 등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자기관찰과 이해, 공감을 받으며 위로받는 치유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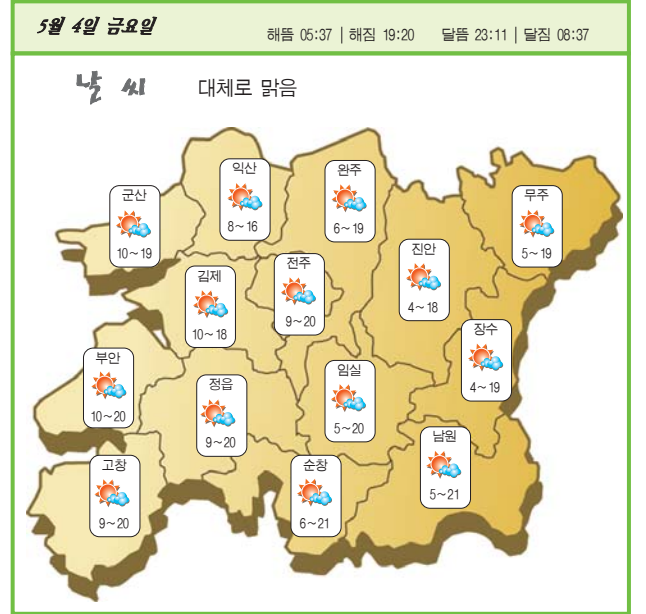
실제, 시가 청년쉼표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후 정신건강과 우울, 상태불안, 취업소진 등 심리적 안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3.8%) △우울(7.9%) △상태불안(6.4%) △취업소진(3.6%)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개인 심리검사와 집단상담, 활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장기간 취업실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증진시켜 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시는 청년쉼표 프로젝트가 구직도전과 실패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상처, 우울증·상실감 누적, 자존감 상실 등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는 더 많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참여 연령을 기존 만19~29세에서 만18세~34세까지 확대하고, 참여인원도 기존 50명에서 2회기 100명(제2기 50명, 제3기 50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쉼표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원대상자도 기존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앞서,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노동시장의 침체로 인한 삶에 대한 무게를 함께 견뎌주는 지역 청년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참여자 모집을 거쳐 5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적 치유를 위한 11종의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을 진행했다. 또, 청년들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을 실시했으며, 매월 50만원씩 3차례의 활동수당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및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청년쉼표 프로젝트는 장기 실업 및 구직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청년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체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뿐만이 아닌 삶의 기회, 지원, 유지, 버팀이라는 전주의 대표적 청년지지 정책으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학생 진로체험 방향 수립

도교육청, 참여형 정책 집담회·포럼 운영  
 집담회, 12일 '진로교육의 방향' 주제  
 포럼, 내달 9일 '진로 체험' 주제로 진행

전북도교육청은 참여형 정책 수립을 위한 집담회와 포럼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담회는 학생 진로체험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진로교육의 방향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전문직 등 교육 주체별 4개 분과마당으로 진행된다.

집담회는 3일 오후 4시 도교육청 7층 학습지원실에서 담당 장학관·장학사, 추진위원 등이 참석해 사전협의회의를 가진 뒤, 12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4차례 진행된다.

첫 집담회는 12일 오후 3시 전주 JS호텔에서 교직원 30~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1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도내 중·고생 30~40명이 참석,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진로 탐색'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26일과 6월 2일에는 각각 학부모, 전문직·교장·교감이 참석해 '자녀의 진로 체험활동의 교육적 성과와 한계' 등을 주제로 집담회를 갖는다.

이어 6월 9일 오후 3시부터는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학생의 주체적 참여를 위한 진로 체험'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교

직원과 학생, 학부모, 전문직, 도의원이 각각 진로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뒤 참석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자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 참여형 집담회를 운영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한옥마을의 밤을 흥겹게... '국악 버스킹' 즐겨볼까?

전주시, 10월까지 시범운영  
 매주 금·토 즐길거리 제공

전주시가 연간 1100만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에서 가장 한국적인 관광지답게 시민과 관광객이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는 국악공연을 펼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경기전광장과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주2회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국악 버스킹 공연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전주한옥마을 내 일반 가요중심의 버스킹 공연이 한옥마을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고 거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을 감안, 많은 관광객이 찾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제한적으로 정제된 국악 버스킹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리도 한옥마을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경기전광장과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주2회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국악버스킹 공연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 않도록 공연 소리가 60db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국악 버스킹 시범운영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

하고, 국악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를 발전·계승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광객들에게는 잔잔하면서도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국악 버스킹 공연을 관람한 한 관광객은 "전주한옥마을의 국악버스킹을 보는 내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옥마을의 전통과 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한옥마을의 버스킹 공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버스킹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연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지정장소에서의 공연 △소음기준을 지키는 공연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계획한다. 또, 전주한옥마을에서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는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민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